투데이 칼럼

프리고진의 죽음

정 복 규
논설위원

푸틴에게 반기를 들고 무장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푸틴의 응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인자의 반란에 대한 '스트롱맨' 푸틴의 처절한 보복이라는 분석이다. 프리고진 사망은 52년 전 중국 공산당의 2인자 린뱌오 사망 사건과 많이 닮았다. 권력의 2인자였던 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 1인자를 넘봤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새삼 린뱌오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러시아 당국, 프리고진 사망 확인'이라는 제목의 러시아 언론의 사진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트베리 지역에서 촬영됐다. 이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당국은 추락한 비행기에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을 포함해 10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숨졌다고 한다.

또 한 장의 사진은 러시아 수사관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은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에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이다. 정부 당국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했다는 건 프리고진의 죽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엠브라에르 레가시 제트기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 주변에 추락했다", "초기 조사 결과 승무원 3명을 포함해 탑승한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한때 '푸틴의 칼잡이', '푸틴의 요리사'로 불릴 정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바그너그룹을 이끌고 바흐무트 점령 등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총구를 돌려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스트롱맨 푸틴 대통령이 철권통치에 치명상을 입으며 권좌에 오른 지 2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는 굴욕의 순간이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응징을 당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장 반란 이후 프리고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지난 8월 1일에는 프리고진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이 아프리카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때만해도 대원들을 모집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투복 입고 소총 든 모습의 프리고진 영상이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사망했나? 미스터리 확산' 보도 등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을 두고 여러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러시아 당국이 추락한 전용기에 프리고진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발표만 했을 뿐 추락 원인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프리고진이 사고기를 타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전용기 추락 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항공기 경로를 추적한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인용해 사고기의 마지막 순간을 전하고 있다. '플라이트레이더 24'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상 징후 없던 항공기가 급강하한 것으로 나온다.

추락 직전에는 항공기가 분당 8000피트(약 2.4㎞)에 가까운 속도로 급하강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정도면 '내리꽂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급하강 기록 때문에 격추설이 나오고 있다.

격추설과 함께 기체 고장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 항공기 정비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고기에 프리고진이 없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리고진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살아있다거나 프리고진의 죽음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짧은 시차를 두고 이륙했고, 프리고진은 추락하지 않은 두 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사 설

관심 · 수요 늘어나는 실버타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버타운(silver town)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실버타운 광고도 늘었다. 실버타운은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노인 주거 단지를 말한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 수요의 증가와 함께 생겨난 노인 주거 단지다. 각종 휴양·여가 시설, 노인용 병원, 커뮤니티 센터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실버타운(silver town)이라는 단어는 흰 머리카락을 비유하여 노인들과 관련된 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만든 실버산업의 실버와 영어 단어 타운을 합성한 것이다.

비슷한 개념의 유료 노인 주거 시설로는 일본의 유료 노인홈, 미국의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이 있다. 실버타운의 종류는 입지 유형에 따라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주거 유형 기준으로 단독 주거형, 공동 주거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종전에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요즘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실버타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큰 병에 걸리면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통 집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치매에 걸리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퇴소해야 한다.

일부 실버타운은 재계약 때마다 치매 검사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 주거복지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일본에서 추진 중인 세대 혼합형 실버타운이나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근접 주거 지원 정책 등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

어느 시인의 여덟번째 시집

김제 출신 박수서 시인이 여덟번째 시집 '날마다 날마다 생일'을 출간했다. 그동안 대중성의 피력, 위트와 재담, 이웃의 이야기를 듣던 귀와 눈이 이번에는 자신에게로 더 많이 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집에 등장하는 염증과 여러 병증과 알약은 시인의 아홉수를 풀어가고 있다. 시집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마흔아홉을 '바람은 어깨를 반도 걸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애가 '가지 많은 나무처럼 몸 한그루가 통째로 출렁댔다'고 표현한다.

동병상련의 인생에 공감과 위로의 노래라는 평이다. 그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변을 살피고 가족을 다시 읽고 이웃을 관찰하고 있다. 만경강 '세창이 다리'를 쓰다듬고 세상천지를 밝히는 '왕달맞이꽃'을 만나기도 한다.

그는 '세상사는 일 절반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시집의 표제 시 '날마다 생일'은 어쩌면 시인이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고백하는 가장 소박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시가 어려워지는 시대일수록 시는 결코 공감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집에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 마흔아홉에 쓰인 시인의 시들은 우리의 생애는 '날마다 생일'이었고 앞으로도 '날마다 생일'이 돼야 함을 들려주고 있다.

전북작가회의와 서민 동인으로 활동 중인 박 시인은 1974년 김제에서 태어났다. 2003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마구간 507호'외 2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박쥐', '공포백작',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해물짬뽕 집', '갱년기 영애씨', '내 심장에 선인장 꽃이 피어서'를 출간했다. 사랑시집으로 '이 꽃 지고 그대 떠나도'가 있다. 박수서 시인의 건투를 빈다.

기고문

명절 연휴 유령체증에 안전운전 해야

전 근 수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장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성·귀경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대부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길게 뻗은 고속도로 위에서 신호등이 없는데 왜 막힐까? 사고가 난 건가? 차가 하필이면 내가 이용하는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렸나? 내 차로만 막히는 것 같아 옆 차로로 바꿔야 하나?"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없고 앞으로만 달리기 때문에 차를 멈출 일은 거의 없는데 왜 고속도로는 꽉꽉 막히는 걸까?

도로 1㎞ 구간에 34대까지는 정차가 생기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차량이 증가해도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도로가 막히는 일은 없다.

도로에 많은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유령체증' 때문에 도로가 막힐 수 있다.

유령체증(Phantom Jam)이란 '특별한 원인도 없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령체증은 왜 생기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차로변경'으로 앞서 달리던 차가 차로를 바꾸면 뒤따르던 차가 자연스레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도로에 차가 많을 경우 속도는 계속 줄게 되고 차로를 자주 바꿀수록 도로 적체의 체증을 부추기게 된다.

"폭발할 때 입자가 연쇄적으로 퍼지는 현상이 차량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는 교통체증과 비슷하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차로는 왜 바꾸는 걸까?

캐나다 토론토대 레델메이어 교수는 "내 차선이 더 막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지적 차이에 의해 차로를 변경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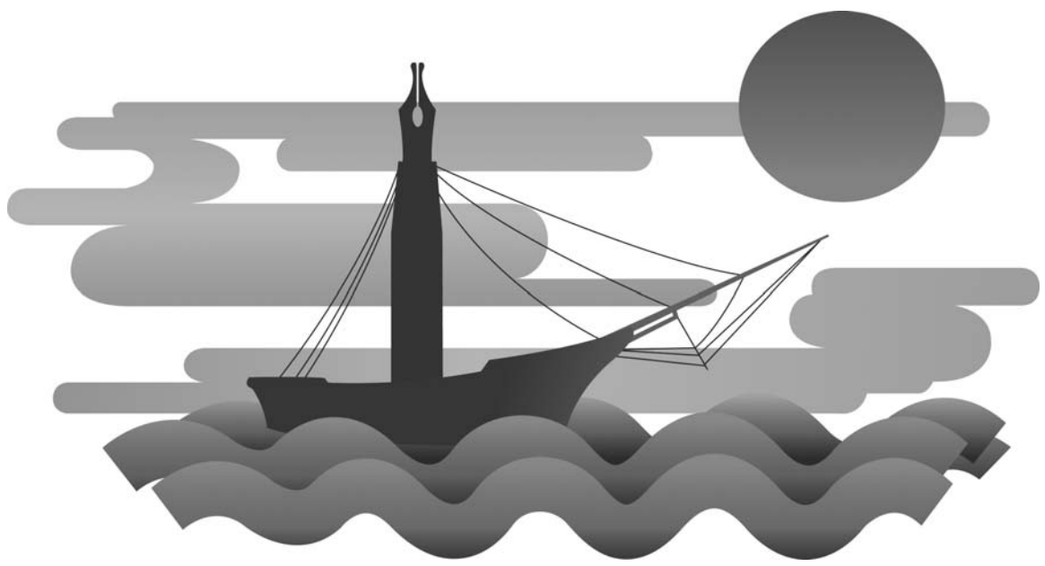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는 옆 차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은 옆 차로에서 자신을 추월한 차가 훨씬 많다고 인식하게 된다.

기분 좋은 명절에 다른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다가는 원인 모를 교통체증에 모두가 얼굴을 찌뿌리게 되고, 조금 더 빨리 가려다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해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더 늦게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